



완구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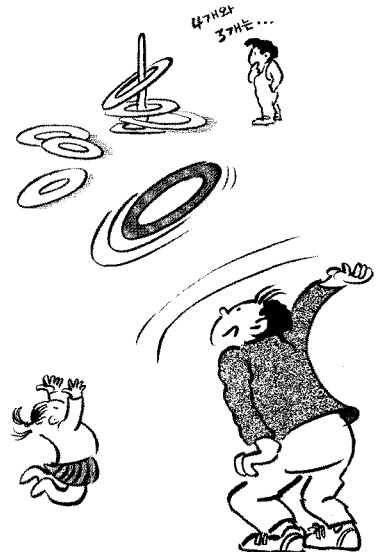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월간 완구> 편집장 이미숙

어린이에게 완구의 의미

완구는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대하여 배우는 일종의 학습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교재를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고, 심리 특성에 맞춰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장난감입니다.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과 욕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시기의 배움의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례를 들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어린아기는 놀이를 하기도 어렵고, 갖고 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손을 갖고 놀기를 시작합니다. 아기들의 탐험심이 그만큼 본능적이고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어린아기들의 심리와 행위는 한살, 두살 성장해 유아가 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적극적으로 됩니다. 때문에 유아들은 갈수록 장난감을 더욱 원하고 많이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아들은 장난감과 함께 놀고, 먹고, 자는 등 잠시라도 장난감과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의 안전문제는 여기서 대두됩니다.



장난감이 안전해야 하는 이유



장난감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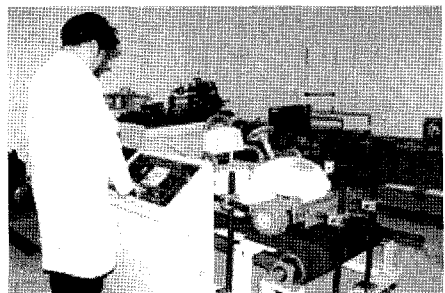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위해성분이나 독성에 대하여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할 뿐 아니라 노출 시 그 악영향이 어른들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건강상의 위해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장난감의 경우, 안전성을 중시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의 천진성에서 비롯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나름의 천진난만하고 기발한 발상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난감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더불어 제품 모서리 부분의 날카로움이 없도록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거나, 혹시라도 위험하게 감길 수 있는 긴 줄은 없도록 하는 등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장난감 놀이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난감에 대하여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안전 기준을 두는 이유입니다.

장난감의 안전 KC마크 부착여부로 반드시 확인해야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으로서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완구상품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검사를 받아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KC인증마크를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앞서 장난감 안전기준도 제정했고, 이 안전기준에 따라 현재 한국원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장난감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KC마크가 부착된 장난감을 시중 판매점에서 고른다면 품질 좋고 안전한 장난감을 구입한 것으로 믿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시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은밀한 판매 채널을 통해 일부 노점이나 점포에서 판매되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놀이를 할 경우,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시중보다 훨씬싼 저가격 때문이며, 안전의식이 희박한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제품들이 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장난감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장난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품까지 중국은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0, 80년대 한국내에서 생산되던 장난감들도 80년대 말부터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했고 이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난감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들도 모두 중국에 생산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해서 전세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제품들은 철저히 품질을 관리, 저렴하면서도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으로서 전세계 어린이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생산된 유명 브랜드의 장난감 상품들이 미국내 안전검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완구 이외 다른 상품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후 각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장난감은 물론 다른 공산품들도 엄격하게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유해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각 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안전검사를 강화했고, 특히 장난감의 경우는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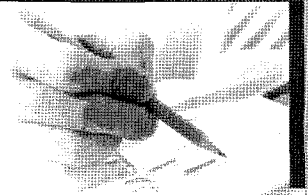
이런 경향은 안전검사를 위한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장난감 가격의 상승으로 결과했고,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저가격의 장난감을 찾아나서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틈을 비집고 지금도 일부 유통업체들이 불법으로 수입한 값싼 장난감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어른이 지켜주어야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어린이의 안전은 필히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수년 전, 완구조합에서는 이들 불법 장난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직 경찰 인력을 투입, 불법 완구의 발본색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소수의 인력으로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 담당 행정기관에 불법 장난감을





색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올 2월5일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안전 전담 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설립된 것을 지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제품안전협회가 끊임없이 범람하고 있는 저가의 불법, 불량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품질 안전 기동 점검' 등의 노력을 통해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놓아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장난감을 비롯한 안전 취약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등 안전사각지대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나라를 제품안전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 이를 위해 당연히 완구조합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담긴 안전한 장난감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어린 시절의 장난감 놀이는 꿈과 환상의 실현입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 놀이를 통해 꿈의 실현을 가늠해봅니다. 그러나, 불법·불량한 장난감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상처받아, 마음속 깊은 속에 자리한 꿈에 손상을 입는다면 어린이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일 것입니다.

언젠가 국내 한 장난감 회사 사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과학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6, 70년대 별로 갖고 놀 장난감이 없던 시절,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델 키트 등 각종 과학교육적 장난감을 생산, 자라나는 남자 어린이들이 이것들을 열심히 갖고 놀면서 장차 고급의 공학인력으로 커나갈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난감이 갖고 있는 값을 매길수 없는 가치입니다.

철학자 로크의 말처럼, ‘하얀백지’ 상태의 어린이들에게 발달하고 ‘안전한’ 장난감으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